

KIPF ISSUE PAPER No.114

통권  
제114호

# 조세재정 브리프

2021. 9. 23  
[www.kipf.re.kr](http://www.kipf.re.kr)

##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bmrkim@kipf.re.kr](mailto:bmrkim@kipf.re.kr)

- 1 서론
  - 2 분석 개요 및 결과
  -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법이나 제도에 의한 조세 부과 대상과 실질적인 조세 부담 대상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조세의 귀착(incidence)은 실질적 세부담의 분포를 의미
- ▶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법인세의 한계적 세부담이 증가할 때 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할수록 기업들이 자신의 세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에 의한 노동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풀타임 노동자보다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김빛마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1 서론

- ▶ 공법이나 제도에 의한 조세 부과 대상과 실질적인 조세 부담 대상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조세의 귀착(incidence)은 실질적 세부담의 분포를 의미
  - 조세가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주체에 귀착되는지는 세율의 설정,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설계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 ▶ 법인세는 이익의 도관의 성격을 가진 법인격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과세 대상과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
  -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이며,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법인세 부담이 노동으로 전가(pass-through)되는 정도에 집중하여 분석 수행

KIPF ISSUE PAPER

## 2 분석 개요 및 결과

### ① 분석 개요

- ▶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Liu and Altshuler, 2013)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variation)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이러한 접근은 국가별 혹은 주(state)별 변이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과 달리 조세 경쟁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존재
    - 정책입안자들이 자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 국가의 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설정한다면 법인세 부담을 주요 설명변수로 한 횡단면 분석 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완전경쟁시장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산업별 시장집중도 변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경쟁구도가 법인세 부담의 노동 전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기업자료 및 개인자료와 연계
  -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와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
    - OECD가 Hanappi(2018)의 방법론을 적용해 추정한 우리나라의 자산유형별 한계실효세율의 가중평균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을 계산
  - 산업별 시장집중도 변수 역시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개인별 임금수준 및 기타 고용 관련 변수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
- ▶ 법인세 부담의 노동귀착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개인단위 회귀모형을 고려

$$\ln(w_{ijt}) = X_{it}\alpha + \beta_1 \ln MTR_{jt} + \beta_2 CR_{jt} + \beta_3 (\ln MTR_{jt} \times \ln CR_{jt}) + \gamma Z_{jt} + c_j + \eta_t + \epsilon_{ijt}$$



- $w_{ijt}$ 는 산업  $j$ 에 종사하는 개인  $i$ 의  $t$ 기 임금 수준,  $MTR_{jt}$ 는 산업  $j$ 의  $t$ 기 한계실효세율,  $CR_{jt}$ 은 산업  $j$ 의  $t$ 기 시장집중도를 의미
- 추가적인 통제변수로서 개인별 특성 행렬( $X$ )과 산업별 특성 행렬( $Z$ )을 고려하였으며  $c_j$ 는 산업 고정효과,  $\eta_i$ 는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
- 또한 개인의 임금수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표본 선택에 의한 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 방정식(selection equation)을 법인세 귀착효과 추정 이전 단계에서 고려

## ② 분석 결과<sup>1)</sup>

- ▶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
  - 구체적으로,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시나리오 1 기준)
    - 즉,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함을 의미
- ▶ 특히,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추정
  -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시나리오 1 및 시장집중도 4분위 기준)

〈표 1〉 시장집중도에 따른 법인세 귀착효과 비교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장집중도 1분위	0.0452	0.0567	0.0449
시장집중도 2분위	-0.0220	-0.0042	-0.0205
시장집중도 3분위	-0.0335	-0.0147	-0.0318
시장집중도 4분위	-0.0543	-0.0336	-0.0521
평균효과	-0.0274	-0.0091	-0.0258

주: 1. 시나리오 1은 우리나라의 이자율 및 물가 상승률 수준을 반영한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 2에서는 낮은 이자율 및 물가 상승률, 시나리오 3에서는 높은 이자율 및 물가 상승률을 가정  
 2. 시장집중도 1분위에서 4분위로 갈수록 시장의 경쟁구도가 독점시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  
 자료: 김빛마로(2020), p. 105 〈표 IV-9〉

1) 상세한 실증분석 결과는 김빛마로(2020) pp. 96-112를 참조

- ▶ 또한 부분표본(sub-sample) 분석 결과, 기업에 의한 노동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②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때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 조정 여지가 높은 노동자 위주로 귀착된다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Fuest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결과

KIPF ISSUE PAPER

###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법인세의 한계적 세부담이 증가할 때 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 특히,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할수록 기업들이 자신의 세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에 의한 노동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풀타임 노동자보다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즉,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에 직면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그룹의 임금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실증적으로 관측
- ▶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바 있음
  - 특히,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축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
- ▶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
- ▶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국가 세수입 및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김빛마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Fuest, Clemens, Andreas Peichl, and Sebastian Siegloch, “Which Workers Bear the Burden of Corporate Taxation and Which Firms Can Pass It On? Micro Evidence from Germany,” Working Paper No. 1216,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Oxford, UK, 2012.

Hanappi, T.,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Model Description and Results from 36 OECD and Non-OECD Countri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38, OECD Publishing, Paris, 2018, <https://doi.org/10.1787/a07f9958-en>.

Liu, Li and Rosanne Altshuler, “Measuring the Burde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Under Imperfect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66(1), 2013, pp. 215~237.

## <웹 사이트>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TS\\_ETR](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TS_ETR), 검색일자: 2020. 12. 9.

